

#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in Relation to the Mothers' Childhood Experiences,  
Satisfaction as a Parent and Spousal Support in Parenting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이진선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문자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Researcher : Lee, Jin Su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Chung, Moon Ja*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hood experiences, satisfaction as a parent, spousal support in parenting and their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child-rearing practices. The subjects were 321 fifth and sixth grader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their mothers. A revised version of the Mother-Father Peer Scale (MFPS; Epstein, 1983) was used to assess the mothers' child experiences. To measure parental satisfaction, the Parent Satisfaction Scale (PSS; Duke, Rose, & Halverson, 1997) was revised and used. A modified version of the Teamwork of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 Abidin, 1988) was used to assess spousal support in parent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Child-rearing Behaviors Questionnaire (Park, 1995) was used to assess the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others who received a greater degree of independence encouragement and acceptance from their fathers tended to show more warmth/acceptance in their child-rearing practices than those who received a lesser degree of independence encouragement and acceptance from their fathers. Mothers who received a greater degree of independence encouragement from their own mothers tended to show more warmth/acceptance of their children but less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and rejection/restriction in their child-rearing practices when compared to those who received a lesser degree of independence encouragement from their own mothers. The mothers who received a greater degree of acceptance from their own mothers tended to show more warmth/acceptance of their children but less rejection/restriction in their child-rearing practices when compared to those who received a lesser degree of acceptance from their own mothers. 2) Mothers who had a greater degree of satisfaction as a parent tended to show more warmth/acceptance but less rejection/restriction in their child-rearing practices than those who had a lesser degree of satisfaction in parenting. 3) Mothers who received a greater degree of spousal support in parenting showed more warmth/acceptance in their child-rearing practices than those who received a lesser degree of spousal support.

**주제어(Key Words):**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Mothers' childhood experiences), 부모역할 만족도(satisfaction as parents),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spousal support on parenting), 자녀양육 행동(child-rearing behavior)

## I. 서 론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아동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모-자녀 관계는 더욱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아동의 강력한 모델로서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익힌다. 부모는 자녀양육 행동을 통해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녀양육 행동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Luster & Okagaki, 1993).

어머니는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발달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Bowlby(1971)는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조건이 어머니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존재와 자녀양육 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양육 행동을 측정할 때 부모가 보고한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는데 이는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적 접근은 부모-자녀관계를 완전히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며(Harris, 1995), 부모 자신이 보고한 자녀양육 행동이 아동이 지각한 자녀양육 행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Smetana, 1995).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다 양육을 받는 자녀가 그들 부모의 양육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

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지적되고 있다(전현진, 박성연, 1999; 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Sroufe(1988)에 의하면 어린 시절 아동기 양육경험은 개인이 성인이 되어 친밀한 애정을 가지는 부부관계나 부모역할을 할 때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Fincham(1994)은 사람이 갖는 애정과 친밀감은 주 양육자가 보여준 관심과 기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기 경험은 성장한 후의 배우자나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경험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Belsky, 1984; Crowell & Feldman, 1988)에 의하면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였다. 반면 아동기에 부당한 양육을 받은 성인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다(Belsky & Vondra, 1993).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현재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전현진, 박성연, 1999; 정혜승, 2000)는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자신의 양육 행동으로 세대를 통해 전이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 행동 간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아동기 양육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신의 자녀에게 보이는 자녀양육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양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대한 부모로서의 심리적 만족감이 수반되어야 한다(도현심, 김지신, 1997; 문혁준, 2001; Simons et al., 1993). Guidubaldi와 Cleminshaw(1989)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부모역할은 결혼한 성인이 출산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역할로, 부모의 삶에 새로운 만족감을 가져다주지만 갈등과 스트레스도 유발한다. 그러므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 개인의 생활양식과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들(Hanes & Dunn, 1978; Lerner & Galambos, 1985)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할수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온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역할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동기 유발적이고 애정적인 관심을 많이 보임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행동을 취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Lerner & Galambos, 1985; Simons et al., 1993).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를 들 수 있다.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이며,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원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만족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Belsky, 1984). Emery와 Tuer(1993)는 부모역할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정서적 지지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는 상대 배우자가 부모로서 자녀와 필요한 정서적인 관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에너지를 주는 지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Unger와 Wandersman(1988)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감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과 온정적인 양육 행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ons와 그의 동료들(1993)은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가 사회적 관계망 지지보다 자녀양육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가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에 만족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수록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민감한 긍정적 자녀양육 행동을 보였다(Lewis, Owen, & Cox, 1988). 반면에, 부부가 자녀양육에 있어 갈등이 많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자녀와의 상호작용도 덜 긍정적이었으며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lweus, 1980).

이상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가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러한 변인들과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아동기 양육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와 어머니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 정도,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의 정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을 부모보고가 아닌 아동보고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부모교육이나 상담 현장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재 시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은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은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두 개 초등학교의 5학년 13학급, 6학년 12학급의 아동 500명과 그들의 어머니 500명이었다. 본 조사는 2006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아동용 질문지는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배부한 후 수거하였다. 배포된 질문지 750쌍 중 633쌍(85%)이 회수되었는데, 본 연구의 특성상 아동의 부모가 현재 함께 살고 있으며, 질문지에 대한 응답정도가 충분한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500쌍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 변인을 상위집단(상위 30%)과 하위집단(하위 30%)으로 나누어 상하집단에 따른 자녀양육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을 구분함에 따라 총 500쌍의 대상 중 321쌍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각 변인마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나누는 점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변인에 따라 연구대상의 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대상 아동의 성별구성은 남아가 167명(52.0%), 여아가 154명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

(N=321)

변인		남아 어머니 (n=167) 빈도 (%)	여아 어머니 (n=154) 빈도 (%)	전체 (n=321) 빈도 (%)
어머니 연령	35세 미만	3( 1.8)	3( 1.9)	6( 1.9)
	35~40세 미만	57(34.1)	47(30.5)	104(32.4)
	40~45세 미만	82(49.1)	86(55.8)	168(52.3)
	45~50세 미만	24(14.4)	16(10.4)	40(12.5)
	50세 이상	1( 0.6)	2( 1.3)	3( 0.9)
어머니 학력	국졸	1( 0.6)	0( 0.0)	1( 0.3)
	중졸	3( 1.8)	4( 2.6)	7( 2.2)
	고졸	80(47.9)	74(48.1)	154(48.0)
	전문대졸/대학중퇴	23(13.8)	25(16.2)	48(15.0)
	대졸	51(30.5)	46(29.9)	97(30.2)
어머니 직업	대학원 이상	9( 5.4)	5( 3.2)	14( 4.4)
	전업주부	84(50.3)	78(50.6)	162(50.5)
	학생	1( 0.6)	0( 0.0)	1( 0.3)
	판매서비스직	13( 7.8)	14( 9.0)	27( 8.4)
	생산직	9( 5.4)	4( 2.6)	13( 4.0)
월가계 수입	사무직	18(10.8)	23(14.9)	41(12.8)
	관리직	2( 1.2)	2( 1.3)	4( 1.2)
	전문직	16( 9.6)	23(14.9)	39(12.1)
	자영업	24(14.4)	10( 6.5)	34(10.6)
	100만원 미만	1( 0.6)	1( 0.6)	2( 0.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9(11.4)	23(14.9)	42(13.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2(25.2)	42(27.3)	84(26.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9(29.4)	41(26.6)	90(28.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18.0)	24(15.6)	54(16.9)
	500만원 이상	26(15.6)	23(14.9)	49(15.3)

(48.0%)였다. 학년별 구성은 5학년 154명(48.0%), 6학년 167명(52.0%)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을 살펴보면, 40~45세 미만(52.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40세 미만(32.4%)의 순서였다. 학력에서는 고졸(48.0%)과 대졸(30.2%)이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50.5%, 취업모가 49.5%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무직(12.8%)과 전문직(12.1%)이 많았다. 가계의 월수입은 300만원 대(28.0%)가 가장 많았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측정은 전현진(1996)이 번안한 Epstein(1983)의 부모-또래 척도(Mother-Father Peer Scale: MFP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아동기에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바를 측정하는 것으로,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부모 각 12문항), 수용 대 거부 차원(부모 각 9문항)의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은 ‘독립성 격려 차원’으로, 수용 대 거부 차원은 ‘수용성 차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부모의 독립성 격려 차원의 문항 중 내적합치도가 낮은 문항(부모 각 2문항)을 제외한 총 3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5점으로 된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별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독립성 격려 차원은 10점에서 50점이고, 수용성 차원은 9점에서 45점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지 않고 독립심이 더 많이 격려되며, 거부되지 않고 더 많이 수용된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s  $\alpha$ 는 도구 전체에 대해서는 .90, 하위영역별로 아버지에 대한 경험 중 독립성 격려 차원은 .72, 수용성 차원은 .87이고, 어머니에 대한 경험 중 독립성 격려 차원은 .70, 수용성 차원은 .82이었다.

### 2) 부모역할 만족도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Duke, Rose, Halverson (1997)이 개발하고 서혜영, 이숙현(2002)이 번안한 Parent Satisfaction Scale(PS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이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8점에서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3)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

배우자 부모역할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bidin(1988)의 양육 협력 도구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의 하위척도인 총 16문항의 협력 (Teamwork)을 신숙재(1997)가 번안, 수정한 13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편이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 평가 및 자녀문제 해결에 대해 부인과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남편이 부모로서 잘 도와준다고 부인이 지각한다.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의 아동용 양육행동 척도를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2004)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온정·수용 행동, 허용·방임 행동, 거부·제재 행동의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각각 10점에서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어머니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한다. Cronbach's  $\alpha$ 는 도구 전체에 대해서는 .83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온정·수용 행동 .85, 허용·방임 행동은 .65, 거부·제재 행동 .83이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의 각 하위영역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의 자녀양육 행동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의 하위차원 중 온정·수용 행동은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의 네 가지 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의 독립성 격려 차원의 상위집단( $M=32.49$ )이 하위집단( $M=30.53$ )보다 자녀양육 행동에 있어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였다( $t=3.04, p<.01$ ). 즉,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과잉보호 되지 않고 독립심이 격려된 어머니가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였다. 부의 수용성 차원의 경우, 수용성 차원의 상위집단( $M=32.34$ )이 하위집단( $M=31.09$ )보다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였다( $t=1.85, p<.05$ ). 즉,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거부되지 않고 수용 받은 어머니가 온정·수용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모의 독립성 격려 차원의 경우, 독립성 격려 차원의 상위집단( $M=32.74$ )이 하위집단( $M=30.13$ )보다 자녀양육 행동에 있어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였다( $t=4.08, p<.01$ ).

<표 2>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 따른 자녀양육 행동의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온정·수용 행동		허용·방임 행동		거부·제재 행동	
	부의 독립성 격려	M(SD)	t	M(SD)	t	M(SD)	t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의 독립성 격려	상(n=166) 하(n=161)	32.49(5.9) 30.53(5.8)	3.04**	16.48(4.1) 16.91(3.8)	-.99	17.39(5.6) 18.26(5.7)	-1.39
	부의 수용성	상(n=161) 하(n=150)	32.34(6.0) 31.09(5.9)	1.85*	16.39(4.0) 16.73(4.0)	-.76	17.33(5.2) 18.20(5.5)	-1.44
	모의 독립성 격려	상(n=159) 하(n=150)	32.74(5.5) 30.13(5.7)	4.08**	15.92(4.0) 16.87(3.8)	-2.16*	16.99(5.2) 18.40(5.3)	-2.36**
	모의 수용성	상(n=176) 하(n=155)	32.79(5.9) 30.56(6.1)	3.39**	16.60(4.2) 16.43(3.5)	.41	16.90(4.9) 18.87(6.1)	-3.19**

\* $p<.05$  \*\* $p<.01$

〈표 3〉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따른 자녀양육 행동의 차이

(N=321)

독립변인 부모역할 만족도	종속변인 통계치	온정·수용 행동		허용·방임 행동		거부·제재 행동	
		M(SD)	t	M(SD)	t	M(SD)	t
상(n=163)		32.60(5.7)	3.35**	16.74(4.1)	.22	17.02(5.2)	-3.18**
하(n=158)		30.39(6.1)		16.65(3.6)		19.07(6.3)	

\*\*p&lt;.01

〈표 4〉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자녀양육 행동의 차이

(N=318)

독립변인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	종속변인 통계치	온정·수용 행동		허용·방임 행동		거부·제재 행동	
		M(SD)	t	M(SD)	t	M(SD)	t
상(n=157)		32.11(6.2)	2.41**	16.70(4.2)	-.24	17.64(5.5)	-.78
하(n=161)		30.49(5.7)		16.81(3.6)		18.12(5.6)	

\*\*p&lt;.01

즉,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과잉보호 되지 않고 독립심이 격려된 어머니가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모의 수용성 차원의 경우, 수용성 차원의 상위집단 ( $M=32.79$ )이 하위집단( $M=30.56$ )보다 자녀양육 행동에 있어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였다( $t=3.39$ ,  $p<.01$ ). 즉,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거부되지 않고 수용된 어머니가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였다.

허용·방임 행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의 네 가지 차원 중 모의 독립성 격려 차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의 독립성 격려 차원의 상위집단( $M=15.92$ )이 하위집단( $M=16.87$ )보다 자녀양육 행동에 있어 허용·방임 행동을 적게 보였다( $t=-2.16$ ,  $p<.05$ ). 즉,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과잉보호 되지 않고 독립심이 격려된 어머니가 허용·방임 행동을 적게 보였다.

거부·제재 행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의 네 가지 차원 중 모의 독립성 격려 차원과 수용성 차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의 독립성 격려 차원의 경우, 독립성 격려 차원의 상위집단( $M=16.99$ )이 하위집단( $M=18.40$ )보다 자녀양육 행동에 있어 거부·제재 행동을 적게 보였다( $t=-2.36$ ,  $p<.01$ ). 즉,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과잉보호 되지 않고 독립심이 격려된 어머니가 거부·제재 행동을 적게 보였다. 모의 수용성 차원의 경우, 수용성 차원의 상위집단 ( $M=16.90$ )이 하위집단( $M=18.87$ )보다 거부·제재 행동을 적게 보였다( $t=-3.19$ ,  $p<.01$ ). 즉,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거부되지 않고 수용된 어머니가 거부·제재 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자녀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이 어머니의 부모

역할 만족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역할 만족도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의 자녀양육 행동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의 하위차원 중 온정·수용 행동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의 상위집단( $M=32.60$ )이 하위집단 ( $M=30.39$ )보다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였다( $t=3.35$ ,  $p<.01$ ).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부·제재 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의 상위집단( $M=17.02$ )이 하위집단 ( $M=19.07$ )보다 거부·제재 행동을 적게 보였다( $t=-3.18$ ,  $p<.01$ ).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거부·제재 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의 하위차원 중 허용·방임 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 3.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자녀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이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상하집단에 따른 자녀양육 행동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의 하위차원 중 온정·수용 행동은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부

모역할 지지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의 상위집단( $M=32.11$ )이 하위집단( $M=30.49$ )보다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였다 ( $t=2.41, p<.01$ ). 이는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를 높게 지각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의 하위차원 중 허용·방임 행동과 거부·제재 행동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 수준을 각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중 온정·수용 행동은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의 네 가지 차원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경험의 경우, 독립성 격려 차원과 수용성 차원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자녀양육 행동에 있어 온정·수용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 즉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과잉보호 되지 않고 독립심이 격려되고, 거부되지 않고 수용된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수용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어머니에 대한 경험의 경우, 독립성 격려 차원과 수용성 차원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자녀양육 행동에 있어 온정·수용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 즉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과잉보호 되지 않고 독립심이 격려되고, 거부되지 않고 수용된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수용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 자신의 부모와의 아동기 경험 중 독립성 격려 차원과 수용성 차원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부모와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Belsky, 1984; Crowell & Feldman, 1988)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대 간에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의 하위차원 중 허용·방임 행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의 네 가지 차원 중 어머니에 대한 경험의 독립성 격려 차원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즉, 독립성 격려 차원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자녀양육 행동에 있어 허용·방임 행동을 적게 보였다. 이는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과잉보호 되지 않고, 독립심이 격려된 어머니가 자녀에게 허용·방임 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부·제재 행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의 네 가지 차원 중 어머니에 대한 경험의 독립성 격려 차원과 수용성 차원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즉, 독립성 격려 차원과 수용성 차원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자녀양육 행동에 있어 거부·제재적 행동을 적게 보였다. 이는 어머니에 의해 과잉보호 되지 않고 독립심이 격려되도록 양육되고, 거부되지 않고 수용된 어머니가 자녀에게 거부·제재적 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기 때 자기 어머니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Crockenberg, 1987)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의 거부·권위주의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기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에 의해서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전현진, 박성연, 1999)와는 다른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중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자녀양육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독립성이 격려되고 수용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온정적 양육 행동을 많이 보이고, 거부·권위주의적 양육 행동은 적게 보였다. 반면에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과잉보호되고 거부되었던 경험을 많이 한 부모는 자녀에게 온정적 양육 행동은 적게 보이고, 거부·권위주의적 양육 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는 부모가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양육의 경험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자녀양육 행동과 관계를 보여 양육의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의 하위차원 중 온정·수용 행동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이 높은 어머니가 낮은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온정·수용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할수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도현심, 김지신, 1997; Hanes & Dunn, 1978; Lerner & Galambos, 1985)과 일치한다. 한편, 거부·제재 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거부·제재적 행동을 적게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모역할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

은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Lerner & Galambos, 1985; Simons et al., 1993)는 연구결과와 연결이 된다. 어머니의 역할수행은 어머니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녀양육과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을 예측하는데 인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의 하위차원 중 온정·수용 행동은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를 높게 지각한 어머니가 낮게 지각한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온정·수용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의 하위차원 중 허용·방임 행동과 거부·제재 행동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어머니는 자녀들과 더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배우자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어머니는 자녀들과 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Krishnakumar & Buehler, 2000)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과 양육에 관한 협력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 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직접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에 지지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양육 행동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긍정적인 자녀양육 행동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에 대한 선행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역할 만족도,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양육에서의 어머니의 역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까지도 이해하며, 부모들이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있어 어떠한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양육 행동이 아닌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에 관한 실질적이며 아동 중심적인 정보를 얻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양육경험이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을 직접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를 자녀양육 행동과 관련지어 살펴봄으로써 아버지가 어머니의 자녀양육이나 자녀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일부 초등학교에서 연구대상을 표집 하였으며, 인구학적 배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종류총에 속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은 어머니의 과거경험의 회상을 바탕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정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과거 경험에 대한 회고적인 질문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 등 보다 심층적인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실시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 행동의 차이가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의 하위차원 중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에 따른 자녀양육 행동의 차이보다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자녀양육 행동 중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만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를 자녀양육 행동과 관련지어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 따른 자녀양육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의 경우, 독립성 격려 차원과 수용성 차원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을 많이 보였다. 어머니에 대한 경험의 경우, 독립성 격려 차원에서는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고,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거부·제재적 양육행

동을 적게 보였다. 수용성 차원에서는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을 많이 보였고,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은 적게 보였다.

둘째,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이 높은 어머니 집단이 만족이 낮은 어머니 집단보다 자녀에게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을 많이 보이고,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을 적게 보였다.

셋째,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를 높게 지각한 어머니 집단이 낮게 지각한 어머니 집단보다 자녀에게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 정도에 따라 어머니를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녀양육 행동 보이는데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과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참고문헌

- 도현심, 김지신(1997). 사회적 지지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문혁준(2001).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전현진, 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 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정혜승(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Vondra, J.(1993). Development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Bowlby, J.(1971). *Attachment(Vol.1) Attachment and loss*, Harmondsworth, Pengain Books.
- Cronkenberg, S.(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 *Child Development*, 58, 964-975.
- Crowell, J. A., & Feldman, S. 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Emery, R. E., & Tuer, M.(1993). Parenting and the marital relationship.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121-14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incham, F. D.(1994).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3-127.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In M. J. Fine (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Hanes, M. L., & Dunn, S. K.(1978). Maternal attitudes and the development of mothers and children. In J. H. Stevens, Jr. & M. Matthews (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s*.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Harris, J. R.(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3), 458-489.
- Krishnakumar, A., & Buehler, C.(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 25-44.
- Lerner, J. V., & Galambos, N. L.(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Lewis, J., Owen, M. T., & Cox, M. J.(1988).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II. Incorporation of the child into the family. *Family Process*, 27, 411-421.
- Luster, T., & Okagaki, L.(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Olweus(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 W.(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Smetana, J. G.(1995). Parenting styles and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299-316.
- Sroufe, L. A.(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 of attachment* (pp.18-40). NJ: Erlbaum.
- Unger, D. G., & Wandersman, L. P.(1988). The relation of family and partner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9, 1056-1060.

---

(2006년 10월 20일 접수, 2007년 5월 2일 채택)